

경찰 관련 주요 보도 [조간]

2023. 7. 4.(화)

□ 경남 기사

-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9건 수사 의뢰 (도민일보)
 - 경남도 118명 전수조사 진행 중
- “노동계 탄압하는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경남 총파업 (경남신문)
 - 근로시간 개선 등 7대 요구안 제시

홍 보 담 당 관 실

교통사고 급증 함양서 음주 1·무면허 4건 적발

1~6월 8명 사망 전년비 2배
경찰 이틀간 특별단속 진행

#1. 지난 6월 29일 낮 12시 55분 함양군 안의면 3번 국도 용추계곡 진입로에서 거창 방면으로 승용차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승용차를 피하려고 고속버스가 급제동을 하면서 뒤따라오던 8t 화물차와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50대 화물차 운전기사

가 숨졌다.
#2. 지난 4월 27일 오후 2시 30분 함양군 함양읍 한들로 교차로 3차로에서 교통 법규를 위반한 1t 화물차가 맞은편에서 달려오던 80대 이륜차 운전자를 치었다. 이 사고로 이륜차 운전자가 숨졌다. 당시 교차로는 점멸 신호로 운영되고 있었다.
함양군에서 교통 사망사고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6월 사망자는 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

명 늘었다. 사망자 75%(6명)가 65세 이상 고령으로 나타났다.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은 지난 1~2일 특별단속을 진행해 음주운전 1건(훈방 7건), 무면허 운전 4건 등을 단속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로 이륜차를 운전하거나 신호를 위반하는 등 통고 처분을 받은 사례도 30건에 달한다.
주·야간 불시 음주 단속에 사고다발 지역(함양읍·안의면·서상면)을 중심

으로 단속과 순찰을 이어간 결과다.
경남경찰청 기동단속팀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기에 주·야간 불시 음주운전 단속을 진행하겠다”며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지고 그 피해 대상이 가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 잔의 술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함양군은 지난달 26일 교통사고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사고지점 안전시설물 보강과 교통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다솜 기자 allhwan@idomin.com

< 교통과 통보 >

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9건 수사 의뢰

경남도 118명 전수조사 진행 중
안전 미확인 사안 속속 경찰로

거제에서 한 부부가 영아를 살해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경남도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아동학대 등 피해 사례가 추가로 나올 수도 있다.

경남도는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대상자 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경남도는 지난달 28일부터 오는 7일까지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도내 미신고 아동은 118명으로 17% (20명)까지 조사가 진행됐다. 안전 확인이 되지 않은 9건은 경찰에 수사 의뢰했으며, 입양 2건, 사망 2건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건은 아동 안전이 확인됐다.

이근호 경남도청 아동청소년과 주무관은 “출산 기록이 남아있는데 출산한 적이 없다고 조사를 거부하거나, 관련 서류를 증빙하지 못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고 있다”며 “아직 전수조사가 17%밖에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 의뢰 사안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경남경찰청에는 이날 오후 2시 기준 출생 미신고 전수조사 대상자 10건에 대해 수사 의뢰가 접수됐다. 사건 이관 과정에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남도청과 통계에서 차이가 날 수 있다.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지난 2일 거제 영아 살해 사건 친부모에게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미신고 전수조사 과정에서 아동이 사라진 사실이 적발되자 경찰에 화장 비용이 없어서 사망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둘러댔다가 살해 혐의를 자백했다. 두 사람은 거제

시고속버스터미널 인근 고현천에 영아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제외하고 6명은 베이비박스에서 유기됐다. 나머지 3명은 아직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았다.

박지혜 경남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지도계장은 “보호자가 주소지에 살지 않거나, 연락처가 없어서 소재지가 파악 안 되는 경우”라며 “경찰 수사 의뢰건을 확인해보니 대부분 미혼모, 경제적 어려움 등을 이유로 베이비박스에 유기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미신고 아동이 아동학대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

감사원은 미신고 아동학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각 지자체와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다솜 기자 all@idomin.com

< 여청과 통보 >

'불법촬영물 협박' 남성 잠적... 시민단체 "피해자 보호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불출석하다 도주
"신상 공개해 구속·엄중 처벌해야"

옛 연인에게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 받은 20대 남성이 잠적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가해 남성에게 신상 공개와 피해자 보호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남지역 44개 단체·기관으로 구성된 '경남여성복지상담소·시설협의회(협의회)'는 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는 연인이라고 믿어 왔던 가해자로부터 2년에 가까운 시간 불법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하고 수차례 금품을 갈취 당해 왔다"며 "피해자 신고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됐다. 가해자는 재판에 참석하지 않고 도주해 재판이 중지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도내 여성단체 회원들이 3일 창원지방법원 앞에서 불법촬영물 유포·협박·금품갈취 가해자의 구속과 처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협의회에 따르면, 피해 여성 A씨는 2021년 11월 2일 협박 관련 녹음을 증거로 제출하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후 지난해 5월부터 열린 재판에서 남성은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이어 11월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이후 남성은 잠적했다. 재판부 사정과 남성의 코로나 감염 등의 이유로 올해 1월 19일과 3월 9일 두 차례 재판 기일이 변경됐고, 4월 4

일과 5월 9일 열린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했지만 아직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이 남성에 대한 신상 공개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피고인은 불출석하다 잠적해 재판이 언제 열릴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며 "경찰에 신고한 이후 늘어지는 재판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많이 받아 매일 정신과 약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의 신상 공개를 해서 빨리 잡아 법의 심판을 받게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소영 경남여성단체연합 대표는 "검찰에서도 불구속 수사 비율이 워낙 높으니 그때 당시에는 못했다 하더라도 재판에 불출석하는 상황에서도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큰 문제"라며 "남성을 즉각 구속하고 A씨의 안전과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형 기자

< 여청과 통보 >

“노동계 탄압하는 정권 규탄” 민주노총 경남 총파업

근로시간개선 등 7대 요구안 제시
5일 결의대회... 2주간 투쟁 예고

민주노총이 오는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부와 참예한 대립이 우려된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는 3일 경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의 노동 탄압이 민주노총 및 노동계 전반에 가해지고 있다”며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경남본부는 “윤석열 정권은 자본독재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권력을 동원해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고, 전체 노동자의 고용 불안과 저임금화를 위해 69시간 장시간 노동, 직무성과급제 등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사용하도록 국민이 부여한 권한으로 노동자를 탄압하고 민생, 민주, 평화를 파괴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조합원들이 3일 도청 정문에서 2주간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성승건 기자/

민주노총은 △노조 탄압 중단 및 노조법 2·3조 개정 △최저임금 인상 및 생활임금 보장 △민영화·공공요금 인상 철회 및 국가 책임 강화 △공공 의료·돌봄 확충 △과로사 노동시간 폐기 및 중대재해 처벌 강화 △언론 자유 및 집회 시위 자유 보장 △일본 핵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등을 이번 총파업 핵심 의제로 정했다.

경남에서는 5일 창원시청 옆 최윤덕 동상 앞에서 민주노총 경남본부 총파업 승리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오는 12일 도청 정문 앞에서 민주노총 전국동

시다발 총파업대회 및 대행진이 예정돼 있다.

한편, 경찰청은 지난달 30일 경찰청장 주재 상황점검 회의를 가졌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가용경력·장비를 총동원해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같은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집회에 따른 △폭력 △도로 점거 △악의적 소음 등 불법행위는 엄격하게 대처하고, 공무집행 방해 행위 시 즉시 현장 검거 방침을 밝혔다. 박준혁 기자

< 정보과 통보 >



마산중부경찰서, 광암해수욕장 안전시설물 합동 점검

마산중부경찰서(서장 서상태)는 지난달 28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에 위치한 광암해수욕장 개장에 앞서 창원시·창원해양경찰서·마산소방서 등과 함께 피서객의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해수욕장 일대 안

전시설물과 범죄취약지역에 대해 합동 점검했다. 중부서는 광암해수욕장 운영기간인 오는 8월 20일까지를 특별치안 강화기간으로 정하고 지역안전 순찰구간을 지정해 범죄 예방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현 기자



진주경찰서, 물놀이공원 범죄예방 활동

진주경찰서는 최근 충무공동 물초울공원 물놀이장 등 주요 물놀이공원 4개소에 대해 범죄예방 정밀진단을 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물놀이공원의 공중화장실·탈의실 시정장치,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 등 보안점검을 실시하고, 작동불량인 비상벨을 수리·보수했다. 정용교기자



진주경찰서 자치경찰 홍보 서포터즈 발대식

진주경찰서(서장 이창열)가 지난달 29일 자치경찰 홍보를 위한 서포터즈단 발대식을 했다. THE 안전 서포터즈단은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CPTED △범죄예방 △협력단체 활동 △자치경찰 전반에 대한 SNS 콘텐츠 제작과 홍보로 진주경찰서의 활동을 알린다. /김종현 기자

‘NO EXIT’ 마약에 탈출구는 없습니다 (마약 예방 릴레이 캠페인)

안태환 김해교육장

안태환 김해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난달 30일 마약류 사용·유통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안 교육장은 “청소년들이 마약에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마약에 대한 위험성과 경각심을 키우고,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자로 안상근 가야대학교총



장과 정영철 농협김해시지부장을 지명했다. 이종구 기자

류병현 동구기업 대표이사

류병현 (주)동구기업 대표이사는 3일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동참했다.

류대표이사는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 관련된 범죄가 증가하고 청소년들이 호기심에 마약을 접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청소년 범죄예방 창원지역 협의회 활동을 통해 마약 퇴출 운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 주자로 경남FC 지현철 대표



와 김환태 범죄예방 진해지구 위원장을 지목했다. 박준혁 기자

오늘의 날씨

출근길 많은 비 대비하세요

4일 부산 울산 경남은 아침부터 많은 비가 오고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미세먼지 좋음 초미세먼지 좋음

2023년 7월 4일 (음 5월 17일) 기상안내 131



나들이	자외선	피부	냉 방	빨래
30	50	50	60	20

맑음	맑은 후 구름많음	한때 비
구름조금	구름많은 후 맑음	천둥번개
구름많음	흐리고 비	흐리고 비눈
흐림	소나기	흐리고 눈

	해돋이/해질		달돋이/달짐
	05:14 19:42		20:54 05:27

물때

	밀물	썰물
부산	08:48 21:29	02:41 14:41
인천	05:18 17:33	11:51 23:47
포항	14:58 -	23:40 -
통영	09:10 22:04	03:20 15:10

바다날씨

앞바다	풍향	풍속 %	파고m
남해서부	남-남서	6-9	0.5~1
남해동부	남동-남	3-7	0.5~1
동해남부	남동-남	4-8	0.5~1
동해중부	남동-남	4-8	0.5~1
서해중부	남동-남	5-11	0.5~1.5
서해남부	남-남서	6-9	0.5~1

주간날씨

	5 (水)	6 (木)	7 (金)
부산	23-29	23-29	23-26
울산	23-32	22-32	22-27
진주	23-32	20-32	21-27
김해	24-32	23-32	22-28
창원	23-31	21-32	22-26
통영	23-28	21-28	22-26
대구	24-33	23-34	23-28
세종	24-29	22-32	23-28
서울	23-29	24-31	24-31
제주	25-29	24-30	25-30